

국내 철새 82% 전북에 등지…‘AI 비상’

전국 오리과 겨울철새 실태조사
금강호, 동립호, 동진강 등 집중
가금류 농장 차단방역 강화해야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오리과 겨울철새 80% 이상이 전북권에 등지 튼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 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국내에 등지 튼 겨울철새는 모두 172종, 그 개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한 총 137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체 75%(60만4,783마리)는 전북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식지별론 군산 서천 금강호(32만3,273마리), 정읍 김제 등 동진강(12만3,369마리), 고창 동립저수지(10만4,072마리), 완주 익산 등 만경강 중류(3만3,813마리), 김제 부안 등 만경강 하류(2만2,566마리) 순이다.

이중에서도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 기러기, 고니류 등 오리과 철새의 경우



고창군 겨울철새 도래지 동립저수지 가창오리 군무 전경.

/고창군 제공

전북권 도래 비중이 무려 82%에 달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오리과 철새는 전국적으로 약 66만마리, 이중 54만 4,353마리(82%)가 전북권에서 관찰됐다.

서식지별론 금강호(32만2,600마리), 동립저수지(10만3,369마리), 동진강(8만 7,340마리), 만경강 중류(3만1,044마리) 등 전국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 전북권 도래지가 차지했다.

그만큼 AI 전파 위험성도 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따라서 가금류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AI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방 강화와 방역상황 점검 등을 통해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의 경우 지난달 27일 부안 A종오리농장에서 올 동절기(2021~22시즌) 첫 고병원성 AI가 발병한데 이어 이달 7일 정읍 B종오리농장에서 또다시 발병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년도(2020~2021시즌) 또한 도내 곳곳에서 모두 16건이 발병해 총 406만여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홀섬, 설명절 이웃돕기 성품

완주에 본사를 둔 육가공사 홀섬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품을 기부했다.

박원희 대표(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20일 전북도를 찾아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됐으면 한다”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양념 돼지불고기 5,000팩을 기탁했다.

기탁품은 그 뜻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47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은 송하진 도지사와 박용훈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정성학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맞이 특별판매행사 진행

전주의 맛이 담긴 설 선물세트가 출시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설맞이 특별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주푸드 설맞이 특별전에는 500여 품목의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이 판매된다. 꽃감, 사과, 배, 한라봉 등 제철 과일과 한우 등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가 준비됐다.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수산물 세트도 새로 선보인다. 전주에서 생산된 감박각, 잡곡, 한과 등도 구매 가능하다.

특별판매전은 전주푸드 경기장점과 송천점, 온라인 전주푸드마켓(jjfoodmarket.co.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양정선 기자

우범기 전 부지사, 22일 자서전 출판기념회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선보여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우범기(사진) 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오는 22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자서전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마련한다.

우 전 부지사의 저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는 광주 부시장 역임 시절부터 고심해온 전주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 한 번쯤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26편에 담았다.



우 전 부지사는 발간사에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크게 혁신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소통과 연대이며 이 관계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새로운 문명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전 부지사는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의 미래 세대가 또 다시 이 땅 전주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

김제시의회,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업체 고발

김제시의회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전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 계약과정과 인허가 과정 등의 커넥션과 밀약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지앤아이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영세업체로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면허와 실적이 없는 삼정이알케이에 특수조건을 달아 계약을 체결, 김제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폐기물업체들에 공고와 공문발송도 하지 않았고 용지매매 계약서에 특수계약 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이밖에 각 사무별로 테마정책 공모나 유관 기관 현장간담회 확대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의 의견이 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치안 정책화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 치안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치안정책 참여가 활성화되는 정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있다”며 “출범 2년차를 맞은 올 한해는 보다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위는 앞선 18일 새해 첫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년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

자치경찰위 신년계획 제시
치안 리빙랩 도입 등 눈길

자치경찰이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치안행정 운영계획을 제시한 채 보다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3월중 자치경찰의 얼굴이 될 캐리커와 이미지 등 상징물을 대국민 공모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을 널리 알리고

친근감도 높여줄 것이란 기대다.

또, 6월에는 대도민 설문조사도 예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치안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치안 리빙랩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리빙랩은 생활실험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사회문제를 예상해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우는 제도를 지칭한다.

앞서 자치경찰위는 도내 주요 대학 경찰행정학과와 재학생을 중심으로 메신저 풀이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목받기도 했다.



골프/프렌드
골대터골프

전국 최대 규모
충고 클럽 전문

063) 222-7952
010-3189-795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17-14 (맨하탄빌라 1층)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늘 푸른 생각**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늘 푸른 생각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탄소운동 첫걸음!
종이컵 줄이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 집니다.**

새전북신문
THE SAEBUKSHINMIN
구독신청 063) 230-5712